

배구 동호인 한마음 축제 열린다

7~8일 보성 벌교서 청호배 광주·전남 배구대회

3개종별 55개팀 1천여 동호인 참가 화합 한마당

지역 배구 동호인들의 한마당 대축제가 열린다.

제41회 청호배 광주·전남 배구대회(대회장 조영호·사진)가 7일부터 이틀간 벌교에서 개최된다.

청호기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광주·전남 배구동호인들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배구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 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대회 참가 희망팀이 늘어나고 있어 명실상부한 지역의 대표적인 동호인배구대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번 대회는 여자동호인부 21개팀, 남자동호인부 19개팀, 교직 및 직장부 15개팀 등 3개 종별에 55개팀 1천여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게 된다. 남자동호인부는 벌교제일고, 여자동호인부는 벌교초교 그리고 교직 및 직장부는 벌교고에서 각각 경기를 치른다.



경기는 9인제 방식 토너먼트로 3세트 21점제로 진행되며 부별 우승팀에게는 50만원, 2위는 30만원, 3위는 2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 모든 참가팀에겐 기념품도 제공된다. 이 대회는 벌교 출신 조영호 한국대학배구연맹회장(대한배구협회 부회장 겸임)이 41년전 사비를 들여 창설한 대회이다. 처음엔 벌교·보성지역 대회로 치뤘으나 이후 출전을 원하는 지역팀들이 늘어나 지난 1996년부터 광주·전남대회로 확대되어 열리고 있다. 최근에는 전북과 경북 동호인들도 참여의 뜻을 나타내고 있어 주최측이 대회 규모 확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당분간은 현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조영호 회장은 이번 대회 개막을 앞두고 “배구가 팀워크를 중시하는 운동인 만큼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화합과 건강을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올해는 전국체전·지역축제 등으로 대회가 늦어졌지만 내년에는 더욱 알찬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 회장은 “타지역에서도 참가를 희망하고 있어 앞으로 대회 규모를 키워가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40여년 배구인의 길을 걸어온 조 회장은 1969년 첫 배구심판을 맡은 이후 1984년 LA올림픽·1988년 서울올림픽·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1996년 애틀랜타올림픽 등 올림픽 4회 연속 국제심판으로 참가했으며 특히 1992년 대회에선 미국과 쿠바의 결승전 주심을 보기도 했다. 오랜 국제심판 경험으로 1989년엔 세계배구연맹 선정 세계 최우수심판상, 1995년엔 아시아배구연맹 심판부 공로상을 수상했다. 조 회장은 현재 한양대학교수로 재직중이며 한양대 산하 전 체육팀을 총괄하는 체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이창호 '반격의 1승'

삼성화재배 준결승 中 추전 꺾어 1-1 동률

벼랑 끝에 몰렸던 이창호가 관록의 승리를 거두고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석불' 이창호 9단은 4일 중국 상하이 한국 문화원에서 열린 제14회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 준결승 3번기 제2국에서 중국의 추전 8단을 맞아 흑으로 163수 만에 불계승을 거두며 1-1 동률을 이뤘다. 두터운 바둑을 선호하는 이창호 9단은 이를 전의 역전패가 마음에 걸렸는지 초반에 4

귀를 점령해나가는 실리전법을 들고 나왔다. 백이 부풀려온 좌중양 삼각에도 성공하며 우세를 유지하던 이 9단은 종반에 자신의 장기인 끝내기에서 다시 실수를 하며 국면은 혼돈에 빠졌다. 그러나 상변 돌을 소홀히 하던 백 약점을 파고들며 대마를 사냥해 단숨에 승리를 옮겨주는 지력을 보였다. 이로써 10회(2006년)와 11회(2007년)에

2년 연속 준우승에 머물렀던 이 9단은 3년만의 결승 진출을 노릴 수 있게 됐다. 결승 진출 티켓은 내일 최종 3국에서 판가름난다. 이 9단은 2~4회에서 우승, 세계대회 사상 유일한 3연패를 기록하는 등 삼성화재배와 깊은 인연을 자랑하고 있다. 중국 선수끼리 대결이었던 또 다른 4강전에서는 랭킹 2위 공제 9단이 주위의 예상을 깨고 1인자 구리 9단을 2-0 완봉으로 물리치며 결승에 선착했다. 지난해 이세돌 9단에 0-2로 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던 공제는 2년 연속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삼성화재배의 우승 상금은 2억5천만원이고 준우승은 7천만원원을 받는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역도의 영웅 장미란이 4일 서울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2009 고양세계역도선수권대회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개훈련에서 바벨을 가볍게 들어 올리며 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적' 일본과 무승부

아시아여자하키

한국 여자하키대표팀이 제7회 여자아시아컵대회 예선에서 '속적' 일본과 아쉬운 무승부에 그쳤다. 임흥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대회 예선 B조 일본과 네 번째 경기에서 임미영(평택시청)과 김다래(아산시청)의 골로 먼저 앞서나갔지만 경기 종료 직전 동점골을 허용해 2-2로 비겼다. 골득실에서 2위 일본에 5점 앞서 조 1위를 지킨 한국은 4일 같은 장소에서 대만과 예선 마지막 경기를 벌인다. 한국은 지난 2007년 홍콩 대회에서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연합뉴스

'태권 여전사' 임수정

로페스 가문 넷째와 맞대결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타이틀을 동시에 지닌 '태권 여전사' 임수정(23·수원시청)이 미국 태권도 명문 집안 로페스 가문의 넷째 다이애나(25)와 맞대결을 벌인다. 임수정은 오는 14일(현지시간) 멕시코 시티의 팔라시오 데 로스 데포르테스에서 열리는 '월드태권도 투어 2009 멕시코'에 출전한다. 이 대회는 남자 3체급, 여자 1체급 등 4체급에 각 대 명적 딱 16명만 참가하는 초청 이벤트. 지난 5월에 일정이 잡혔다가 신종플루 때문에 연기된 대회이다. 지난달 덴마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임수정은 여자 57kg급에 출전해 작년 베이징올림픽 동메달리스트 다이애나 로페스와 맞붙는다. 다이애나는 베이징올림픽에서 아지제 탈리풀루(튀르키예)에게 1점차로 패해 금메달을 놓쳤다. 임수정은 올림픽 결승에서 탈리풀루를 꺾고 금메달을 땀다. 남자 80kg급 박정호(24·가스공사)는 사상 처음 세계선수권대회 5연패에 성공한 로페스 가문의 둘째 스티븐(31)과 대결한다. /연합뉴스

"금 3개 이상 획득 국민께 기쁨주겠다"

역도대표단 세계선수권 출정식

"최소 3개 이상의 금메달을 따내겠다" 2009 세계역도선수권대회(20-29일·고양킨텍스)에 나서는 한국 역도의 간판스타 사재혁(강원도청)과 장미란(고양시청)을 포함한 15명의 남녀 태극역사들이 '금빛 결의'를 다졌다. 여우남 대한역도연맹회장과 박종용 선수단장을 비롯해 남녀 대표팀 선수들은 4일 오후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에서 2009 세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출정식을 치렀다. 여우남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회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어느 대회보다 뜻 깊다. 역대 최고 수준의 대회로 치러내고 싶다"라고 밝혔다. 또 박종용 선수단장은 이번 대회 목표에 대해 "금메달 3개 이상을 기대한다. 경제도 어렵고 신종플루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시원한 금메달 소식으로 기쁨을 주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이흥근 감독 역시 "모든 선수가 메달을 따면 좋겠지만 현재 여자 75kg 이상급에 나서는 장미란의 세계선수권대회 4연패 달성이 가장 큰 목표다. 이어 여자 77kg급의 사재혁과 여자 53kg급의 윤진희에게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구체적인 메달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

맨유 16강...박지성 10경기 연속 결장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CSKA 모스크바(러시아) 수비수의 자책골에 편승해 극적인 무승부를 거두고 일제감치 2009-201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무릎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박지성(맨유)은 16강 진출에 힘을 보태지 못하고 최근 10경기 연속 결장했다. 맨유는 4일(한국시간) 오전 영국 맨체스터

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치러진 모스크바와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B조 4차전 홈 경기에서 2-3으로 패색이 짙던 후반 45분 안토니오 발렌시아의 슈팅 상대 수비수 게오르기 슌니코프의 몸에 맞고 골결정 자책골이 되면서 3-3으로 비겼다. 이로써 맨유는 B조에서 3승1무(승점 10)를 기록해 3위 CSKA 모스크바(1승1무2패·승점 4)와 승점 차를 6점으로 벌리면서 최소 조 2위를 확보해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Mudungsan Munbinjeongsa' (무등산 문빈정사) featuring a large banner with the text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and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납골당이 있습니다'. Below the banner are three columns of text describing the facility's features, such as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and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정례법'. At the bottom, there is contact information: '062)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Advertisement for 'Haeryeongbeoljeongmae' (해령법률경매) featuring a large banner with the text '해령법률경매' and 'T:062)430-7117 H.P:011-629-0827'. Below the banner are several tables listing auction results for various locations like Gwangju, Jeonnam, and Jeonbuk. Each table includes columns for '지역' (Location), '소제지' (Property), '면적' (Area), '입찰가' (Bid Price), and '최자가' (Highest Bidder). The tables are organized by location and then by specific property details.